

전남 담양 경주씨들이 소묘 스님 어머니 묘소 돌보는 사연

‘유택점지’ 인연으로 373년째 시제...대이어 ‘보은’

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설하고 계신다. 이 경전은 어머니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눠 생리학적 측면에서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다. 그래서인지 인연(人天)의 스승이 되고자 삭발염의(削髮染衣한 수행자이건만 출가자들에게도 어머니는 애...

각별하게 모셔지는 평범한 묘소

얼마 전, 전남 담양 월산면 월계리 농암부락 뒷 동산인 황산에 자리한 묘(墓) 하나가 곱게 단장을 했다. 주위의 어느 산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작은 묘이다. 그러나 이 지역 월산에 뿌리를 둔 경주씨 후손들에게는 특별함이 있는 묘소이다. 집안의 어른이 아닌 어느 스님의 어머니 묘로, 지금까지 각별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묘소의 주인은 조선중기 서산 대사의 법을 이은 소묘 태능(德隆 太能 1562-1649) 스님의 어머니이다. 친부모 묘마저 외면당하는 요즘의 각박한 현실에서 소묘 스님의 어머니 묘가 지역주민들에게 무려 400년 가까이 각별하게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 ‘무자손천년향화지지(無子孫千年香火之地)’ 터입니다. 예로부터 이 묘를 잘 받들면 복을 받는다고 전해져오고 있어 떠나없이 밭초하고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주씨 월산문중 소묘를 맡고 있는 도유사(都宥寺) 이복우씨(69)는 “어려서 어른들로부터 소묘 대사 어머니 묘를 잘 돌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며 소묘 대사 어머니 묘소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 이야기는 3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대의 고승 소묘 대사는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있으면서 담양 용흥사 불사를 벌였다. 당시 용흥사 인근에 거주하던 이복우 씨의 10대조 이시당, 시우 형제가 불사에 동참하였고 이를 계기로 스님과 교류하게 되었다.

용흥사 불사동참과 문중의 변창

어느 날 시당, 시우 형제는 소묘 스님에게 부친의 유택 점지를 요청했다. 사찰불사에 큰 도움을 받았던 터에 감사의 뜻으로 유택 두 곳을 소개하며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하나는 후대에 큰 벼슬이 나오고 명예가 높은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로 자손이 번창한다는 터였다.

시당, 시우 형제는 집안이 번창한다는 ‘육녀탄금(玉女彈琴)’ 형국의 자리를 택하고 부친 일민(逸民)의 묘를 썼다. 화려한 명예보다 소박한 화복을 선택한 것은 오늘날 사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 소묘 스님은 속가의 어머니 묘를 이곳 월산으로 옮겨 한미타 뒷밭였다.

“경주씨 묘와 나의 어머니 묘에 제를 지내면



경주씨 후손들이 소묘대사 어머니묘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묘사 쓴 이가 일진 스님이고 오른쪽 옆이 고경 스님. 원인은 경주씨 월산문중 도유사 이복우씨.

집안이 부유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천년간 이어진다.”

이후 경주씨 월산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보름 시제(급년부터 음10월 11일에 소묘 대사의 어머니 묘에서도 제를 올리고 있다. 그러기를 지난 해까지 373년을 이어온 것이다.

지난달 어느 화창한 봄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순천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과 일진 스님이 담양 월산을 찾았다. 월산문중 도유사 이복우씨를 비롯해 경주씨 집안에서 스님들을 맞이했다. 소묘 대사 어머니 묘소에 단촐하지만 음식을 올리고 스님들이 향을 살랐다.

일진 스님은 “‘무자손천년향화지’는 후손이 끊긴 스님들의 부모를 위해 제사는 물론 때마다 공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효(孝)사상이 담겨있다”며 “이곳 소묘대사 모친 묘는 김계 불거촌 진륙대

사 모친 묘, 부안 동진 벽송선사 모친 묘와 더불어 한국 3대 무자손천년향화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진 스님은 또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방편으로 유택공수를 썼는데 이는 한 가족이 아닌 문중을 불자화하는 최고의 포교였다”고 강조한다.

송광사 스님들의 ‘감사 방문’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 스님도 “소묘 스님은 담양출신으로 백양사, 용추사, 연곡사 등 호남지역에서 선종을 크게 일으킨 선승으로 문하에 집경, 해운 스님 등 수백 명이 일파를 이뤄 ‘소묘파’라고 불리며 오늘에까지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후손이 끊긴 소묘 스님의 어머니 묘를 400년 가까이 경주씨 문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승속을 떠나 본받을만한 일이



소묘 대사 어머니의 묘임을 알리는 비석문. ‘소묘대사 태능묘지묘’라고 쓰여 있다.

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스님들은 “‘무자손천년향화지’는 포교는 물론 효사상을 담고 있는 효행관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한다’는 신념이 가족간에 서로를 돌고 우애를 살려 스스로 잘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묘대사가 터를 잡았다는 경주씨 월산문중 중시조 자리는 소묘대사 어머니 묘에서 가까운 능선 너머에 있다. 누가 보아도 천하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명당자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스님의 예언처럼 담양일대의 경주씨들은 번창했다.

현재 월산문중만 650여명에 이르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천석 이상 집안이 즐비하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동행했던 월산문중 이경우 씨(75)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따듯한 충고를 곁들인다.

“우리가 부모 없이 어찌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조상과 어른을 섬기는 풍습을 잃어서는 안돼요. 집안의 연고는 없어도 저희가 소묘 스님의 모친 묘를 섬기는 뜻이 불교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사진/담양=이준엽 기자

어버이날 행사 다채

경로잔치·문화공연·실버미팅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을 맞아 갈 곳 없는 이웃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불교계 각 단체와 복지관에서 풍성한 행사를 준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 031-768-0064)’에서는 5월 4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과거사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7일에는 할머니들을 위한 ‘효(孝)잔치’를 연다.

또한 대구 동화사 부설 ‘자비의 집(053-255-3248)’이 4일, ‘관음의 집(053-559-4960)’은 7일, 11일에는 사원주지 연합신도회가 대구 삼덕동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에서 각각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계 복지관에서 준비한 행사도 다채롭다.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일면, 031-852-2595)는 7일 ‘무료합동결혼식’을 준비했고, 일산노인복지관(관장 명인, 031-919-8677)은 1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전통타악공연 및 페루민속음악 공연을 펼친다.

또 서울 역삼제노인복지센터(관장 여익구, 02-385-8205)는 21일, 과천종합복지관(관장 김종성, 02-507-6319)은 5월 셋째 주에 각각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칠·팔순잔치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한다. 서울 광진노인복지관(관장 화평, 02-458-0350)은 7일 ‘어르신 실버미팅’ 주선, 18일 어린이대공원 ‘추억의 운동회’ 개최로 어버이날을 기념한다.

서울 능인복지관(관장 법동, 02-571-2988)은 강남 개포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일 ‘능인 어르신 한마당’을 열어 어르신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 042-488-6297)은 10-13일 연등만들기, ‘실버 끝판왕’,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 02-929-7950)도 12일 건강상담과 체육대회 등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수원 서호노인복지관(관장 성보, 031-291-0911)은 4일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안면도 나들이’를 준비했고,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 031-716-4215)은 7일 양영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카네이션 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장인사 신도회가 준비한 식사를 대접한다.

군포 매화종합복지관(관장 수현, 031-393-3677)은 6일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과 어린이가 각각 100명을 초청하는 ‘유노공감’을 준비해 마술 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소묘태능 스님은? 서산 대사 법맥 이은 선승

성은 오씨, 전남 담양 출생. 13세에 백양사에서 출가. 부휴, 서산대사 밑에서 공부하고 20세에 은사의 명으로 개당해 교화를 폈다. 임진왜란이 나자 폐허가 된 절을 지키며 전각을 수리하고 전쟁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후 지리산, 금강산, 오대산, 구월산 등에 머물며 교화

를 폈다. 만년에 지리산 연곡사에 머물며 교화하다가 1649년 88세(법랍 75)로 입적. 유정의 제자 가운데 편양언기와 함께 선의 양대 고승으로 추앙되며 백양사 연곡사 용추사에 부도가 있다. 저술로 <소묘당집> 1권이 있으며 시와 계승 20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벌초작업, 사찰, 정원

새로운 파워 업그레이드 (무소음 벌초기)

강력한 파워 - 21세기 예초기

사찰주변·벌초·정원·공장주변 조경및 제초작업 해결

깨끗하게! 안전하게! 간편하게! 신속한작업

초강력 밧데리로 장시간작업가능

21세기 예초기의 특징

- 강 력 한 파 워 : 모터 장착 (약 7000RPM) 풀뿐만 아니라 잡목(직경3cm)도 쉽게 제거
- 충분한 작업 시간 : 고성능 강력함 파워밧데리로 1회 충전으로 장시간(3~4시간) 작업가능
- 안 전 한 작 업 : 안전망 부착, 돌이튀는 것 방지
- 만 족 한 효 과 : 안전된 칼날로 부속 첨단 다중 면도날 원리로 깨끗하게 마무리
- 저 령 한 유 지 비 용 : 충전식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음
- 간편한휴대및이동 : 조립식으로 배낭에 넣어 휴대가 편리하고 이동이 쉬움

작업대상 : 사찰주변, 벌초, 정원, 공원, 잔디관리, 학교, 공장 주변 잡초관리, 산 관리

전문 및 상담전화 (031) 342-9696

※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택배로 배달합니다. ▶ 농협 : 110-12-470206 (예금주 : 김 양 금)

대리점 조건

- ◆ 초도물량 500만원으로 창업가능
- ◆ 무점포 가능 차량소유하신분 우대
- ◆ 대리점지역 전남 충판, 전북 충판, 충청도 충판, 경상도 충판, 강원도 충판

- 사찰주변 조경, 잡초제거!
- 벌초, 잔디 깎기에도 최고!
- 산 잡목관리 및 정원조경!
- 학교 화단 조경작업 최고!
- 공장 주변 잡초제거에도 최고!

특별현금가: 298,000원

제조원 : 국산 에스아이테크 예초기사업부